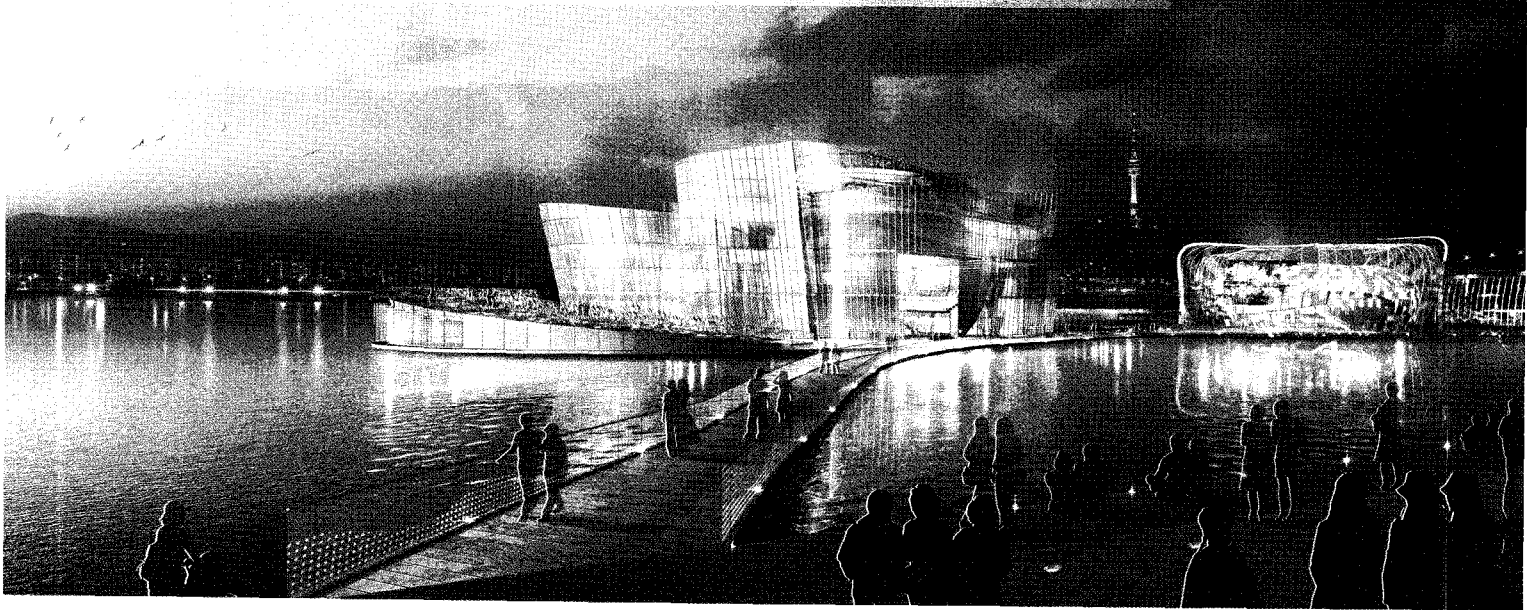


대한민국 한강, 부활을 꿈꾸다 연재 8 성공적 부활을 위한 과제

8대 마스터플랜 집중 탐구



한강르네상스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강을 주목하고, 한강과 더불어 우리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사업이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훼손된 관계를 되찾고 한강이 갖는 가능성과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여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8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이 달라진다

개발의 시기를 거치며 동서, 남북을 가르는 경계로 남겨져 있던 한강이 통합의 공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용산과 여의도 지역은 워터프런트형 타운으로 조성되고 서해로 열리는 한강 주운의 광역거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상암, 영동, 왕십리는 부도심의 문화기능을 보강하며 마곡지구는 배후지에 조성될 첨단연구단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수로를 통해 서울은 미래 친환경 모델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활력 넘치는 수변도시의 탄생

‘워터프런트 타운 조성’ 계획은 마곡, 용산, 잠실, 행당, 흑석, 당인리, 상암·난지, 여의도 8개 지역을 워터프런트 타운으로 조성하여 수상터미널과 연계함으로써 문화·관광·레저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워터프런트 대상지 8곳을 여가 활용, 레저문화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은 물론 주변 문화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지하철, 김포공항과 연계한 여객터미널 유치와 모노레일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장거리 보행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한강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한강으로

한강 주변 건축물의 경관을 관리하고 강 안팎을 아우르는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한강을 더욱 매력적인 강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한강 주변은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수변 풍경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한강 주변의 건물과 조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한강 교량, 공원 아파트 등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강 안팎으로 한강의 선형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야간 조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강변의 교각, 옹벽 등 각종 구조물에 도시 갤러리 개념을 접목해 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서해로, 세계로, 항구도시로 거듭나는 서울

예로부터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한강은 한국전쟁 이후 서해로의 뱃길이 닫힌 '호수'로 변해 버렸다.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긴 도시 하천 한강이 그 빛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한강이 서해로 나가는 길을 다시 열어 한강의 숨은 가치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우선 실용적이고 다양한 수상 교통을 개발하고 한강을 여객·관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된다면 한강은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되살아난다

21세기의 최대 과제이자 화두는 환경!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역시 '환경'이 핵심 키워드다. 서울시는 도시 하천 한강이 생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강 전체의 생태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86%를 차지하는 현재의 콘크리트 인공 호안을 87%까지 자연형으로 재조성하고자 한다. 한강을 따라 대단위 동서 생태녹지축이 조성되고, 한강과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14개 지천의 생태를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서울시 전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생태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다.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우면서도 멀기만 했던 한강이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까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강은 고속도로와 아파트단지로 막혀 있는 데다, 버스나 지하철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접근환경을 개선해 제방 위를 달리는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를 부분적으로 지하화 하여 근본적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교량 위에 버스정류소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한강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견고 싶은 거리, 쾌적하고 개성 있는 보행로로 바뀔 한강은 이제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다.

다양한 역사유적 체험 공간으로의 변화

한강변의 역사유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역사관련 박물관을 세워 역사문화를 체험할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성을 갖는 주요 문화유적과 한강공원을 연계하는 역사거리와 보행연결로를 조성해 한강변의 역사 유적을 보다 쉽게 탐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동지역의 암사선사 유적지와 강서지역의 탑산, 궁산이 한강공원과 직접 연결되고 광나루와 망원 등 한강공원 내에 역사유적 테마파크가 조성되며 역사박물관과 전시관도 들어선다.

서울의 상징공원으로 새로 태어나다

한강공원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도록 서울의 대표적인 12개 상징공원을 한강변에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강공원 배후지의 토지이용 특성, 경제적·문화적 가치와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테마에 걸맞은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반포, 뚝섬, 여의도, 난지한강공원 1차 특화사업은 내년 10월 완성될 예정이며 인공섬 및 올 10월 운영을 시작할 세계 최초 교량분수인 반포대교 낙하분수 등이 한강의 랜드마크로서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를 이루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 서울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풍네 프다리와 센강의 낭만을 향유하기 위해 파리를 찾듯 한강만의 고품격 문화를 즐기기 위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잡으려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한강의 부활을 통해 서울은 20년 후,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도시, 풍요로운 문화가 가득한 도시,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매력적인 수변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한강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